

李, 대권주자 입지 공고화... 野 선수교체론은 수면 아래로

민주당, 박스권 지지율 탈피 기대
李, 바로 안동 산불화재 현장 향해
다시 현재 '尹 탄핵심판 선고' 집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비명(비이재명)계의 '선수교체론'은 수면으로 가라앉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치러질 조기대선 후보로서의 부담을 덜어냈다.

이재명 대표는 무죄 선고로 그야말로 기사화생을 했다. 사법연감을 바탕으로 최근 3년간 형사 항소심 판례를 보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이 나왔는데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경우는 1.7%에 불과했다.

이 대표가 2심에서도 1심 때와 같은

이재명 사법리스크 주요 혐의별 재판 상황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위증교사	대복송금	업무상배임
혐의 내용	• 대선 과정에서 "故김문기 몰랐다" 발언 •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사업관련 "국토부협박 있었다" 허위사실 공표	• 대장동·백현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 검사사칭 사건 관련 주범으로 몰기로 한 혐의가 있었다고 허위 증언(위증) 교사	• 쌍방울 대복송금 의혹 관련	•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기소 시점	2022년 9월 8일	2023년 3월 22일, 10월 12일 (백현동 사건 추가 기소)	2023년 10월 16일	2024년 6월 12일	2024년 11월 19일
재판부	서울고법 형사6-2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서울고법 형사3부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
진행 상황	1심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2심 무죄	1심 진행 중	1심 무죄 2심 진행 중	1심 진행 중	1심 진행 중

/뉴시스 그래픽

의원직 박탈형을 선고 받았으면, 비명계는 사법리스크를 안은 주자에게 당의 대선을 맡길 수 없다며 '선수교체론'을 띄울 것으로 예상했다. 이 대표의 의원직 박탈형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

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에 출마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감형에도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 받았을 경우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으나,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하지만, 이

대표가 벌금형도 아닌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이 대표를 향한 구심력은 더 강력해졌다는 평가다.

민주당은 박스권에 갇혀있는 지지율 이변을 기회로 상승할 것을 기대하며 민생·경제 행보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 대표는 발길을 안동 산불 화재 현장으로 돌려 이재민을 위로할 예정이다. 또한 이 대표는 27일엔 소상공인 연합회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경제 침체로 신음을 내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들을 예정이다.

만약 이 대표가 의원직 박탈형을 선고 받았을 경우 지난 대선에서 사용한 선거비 434억원을 반환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우려도 축소시켰다. 당의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이날 아침 MBC 라디오에 출연해 만약 유죄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선거비를 반환해야 하

는 것이냐는 사회자의 물음에 "434억 원 정도 반환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의 의원직 박탈형 선고를 예상했던 국민의힘은 뒤바뀐 2심 선고 결과에 향후 정국에서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3개월 안에 끝내겠다는 '6·3·3 원칙'을 지키겠다고 공언한 만큼, 국민의힘은 신속한 대법원 판결을 촉구하며 사법부를 압박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제 정치권의 시선은 헌법재판소로 향할 예정이다. 현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일자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주 내 선고도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은 광화문 천막당사와 현재 인근에서 윤 대통령 파면 촉구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李 "사필귀정"... 與 "대단히 유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사필귀정"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에게 제기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무죄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며 "한편으로는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데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정권과 검찰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썼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냐"라며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 이상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사필귀정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당내에서도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이 대표 무죄 선고를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위법부당한 법 해석

을 적용해 내린 소위 윤석열의 구속 취소에 대해 사상 초유의 즉시항고포기로 탈옥시킨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도 공정하게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전을 방문 중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이 알려지자 "참..."이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항소심 법원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며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법원에서 정리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예진 기자 syj@

"김문기·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 아냐"

>> 1면 '李, 공직선거법...'서 계속

2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방송에서 '김문기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는데 이는 조작된 것'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 "거짓말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다"며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김문기에 대해 '성남시장 때 몰랐다' '경기도지사가 된 후 알게 됐다'고 한 발언은 인식에 관한 것을 짚고 명확하게 말한 것이므로 교유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인정할 정도의 여지가 없다"며 "행위에 관한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로부터 부지 용도 변경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과장했다고 볼 수는 있으나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세부 내용이 진실과 차이가 나거나 과장됐다 하더라도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밝혔다. 이어 "의견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사실공표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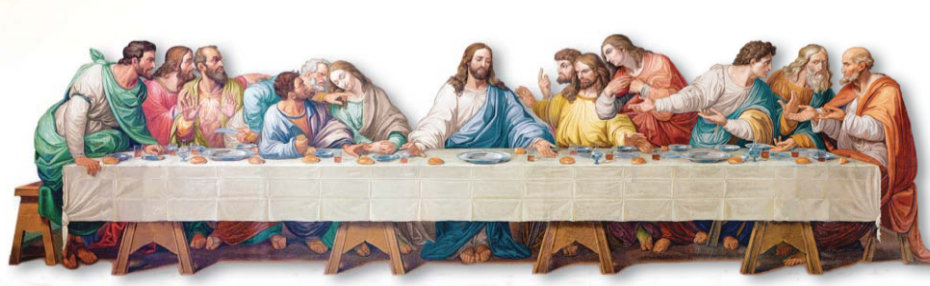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김문기 발언'과 '백현동 발언' 등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예진 기자

watv.org

불확실의 시대

가장 확실한 약속 유월절

오늘, 평안하십니까?



어떤 위기에도 견고한 방패막이가 되어 우리를 굳건히 지켜주겠다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새 언약 유월절'.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것[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 잔[포도주]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누가복음 22장 15~20절

예수님의 살과 피를 표상하는 유월절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이 우리 안에 거해 하나님의 보호 아래 확실한 희망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히 바라셨던 새 언약 유월절이 성경대로 복원돼 175개국 7800여 하나님의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당신 삶을 단단히 붙잡아 줄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리, 2025년 유월절 대성회에 초대합니다.

유월절(逾越節, Passover)은 '제일이 넘어가는 절기'라는 뜻으로, 성력 1월 14일(양력 3~4월경) 저녁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희생을 앞두고 제자들과 유월절을 지키며 죄 사함과 영생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13절, 마태복음 26장 17~28절, 요한복음 6장 53~54절)

하나님의 교회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새 언약 유월절을 성경대로 지킵니다.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WORLD MISSION SOCIETY CHURCH OF GOD